

# AI 거품 논란에도 반도체 수요 견조… 삼성전·SK하이닉스 반등론 ‘솔솔’

반도체 수요 2028년까지 공급 상회  
금리·AI 투자 불확실성 완화 전망  
업계, 실적 개선·주가 반등에 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들이 인공지능(AI) 거품 우려를 딛고 뚫뚫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풍에 거품이 있지만,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인데 큰 이견이 없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도 21일(현지시간) 유럽 산업계에 AI의 빠른 도입을 촉구하며 AI 인프라 투자에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황 CEO의 이번 유럽 순회는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회의론이 커지고 최근 2주간 AI·반도체 주가가 타격을 입은 시점에 이뤄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08년 이후 가장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4.03% 내린 21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52주 최고가인 38만원보다는



AI 거품 우려로 하락하는 반도체 주가와 견조한 수요 전망 속 삼성전·SK하이닉스의 반등 기대를 표현한 이미지.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43.55% 낮았다. SK하이닉스는 5.49% 내린 12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고가 300만2000원 대비 59.26% 하락했다.

주가와 전망은 온도차를 보인다. AI 반도체 수요 전망이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수요는 2028년까지 공급

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여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면 현재 주가와 실적 전망 사이의 괴리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실적과 주가의 이례적 괴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확대된 상태”라며 “11~12월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이례적 괴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W자 반등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기를 압박해온 금리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 중반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판단이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코어워브 등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재무건전성 우려 역시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AI 투자 지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불확실성 완화와 삼성전·SK하이닉스 실적 가시성 확대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우려의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돼 하락 위험 보다는 상승 여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노무라증권도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글로벌 메모리 업종의 ‘주목할 종목’으로 꼽고 두 회사 모두에 ‘매수’의

견을 제시했다. 노무라가 추적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신규 설비 규모는 올해 22.3기가와트(GW)에서 내년 31.5GW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무라는 이 같은 설비 확대를 바탕으로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보다 빨라 가격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체들의 현금 창출력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 9곳의 합산 순현금은 올해 2분기 2820억 달러(약 374조7000억원)에서 2028년 말 약 2조 달러(약 2657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노무라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전환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세계적인 헤지펀드 시타델 켄 그리핀 회장은 “최근 AI 투자 열풍은 확실히 거품 상태다”면서도 “거품에서 생존에 성공한 기업들이 수십 년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황금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 네이버·두나무 결합 독점 우려… 금융위, 안전장치 검토

거래소 공공성·중립성 확보 방안 추진  
자기자본·시장 운영 역량도 강조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우려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영향력으로 거래소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금융위는 양사 결합에 따른 독점 방지 장치에 관한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기업 결합 시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같은 취지



3사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회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두나무

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인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식

교환을 완료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결합 이후 시장 지배력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정책과 관련해서도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

조했다.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이에 걸맞은 자기자본과 시장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내용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운영 방식과 종류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글로벌 압법 사례와 국내 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물연계자산(RWA)과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등 국내 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금감원 두나무 ‘기와’ 사칭 가짜 체인 사기 주의보

유사 주소·체인 ID로 투자자 유인

금융감독원은 22일 두나무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와(GIWA)’ 등을 사칭한 가짜 체인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조직은 개발사의 공식 발표가 없는 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 메인넷이 기습 출시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후 블록체인 접속에 쓰이는 원격절차호출(RPC) 주소와 네트워크 식별번호인 체인 ID,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을 옮기는 브릿지 등을 공식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꾸몄다.

최근 발생한 기와 사칭 사건에서는 공식 네트워크의 체인 ID ‘91342’와 비슷한 ‘9134’를 사용했다. 당시 공식 네트워크는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탈중앙화거래소(DEX)인 디와이스왑(DYOR Swap)이 가짜 네트워크를 진짜로 오인해 지원하면서 이용자들이 가짜 브릿지로 이더리움을 입금했다. 사기조직은 이렇게 모인 가상자산을 한꺼번에 인출해 가로챘다.

금감원은 윤체인 기반 사기의 경우 자금 이동과 탈취가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이뤄져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복구가 어려워 자산을 전송하기 전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새로운 네트워크나 체인이 등장하면 개발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지사항을 통해 실제 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식 출시되지 않았거나 개발 중인 메인넷을 지원한다고 내세우는 브릿지와 스마트계약 등을 사기로 지목했다.

개발사 공식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습 출시와 에어드랍, 사전 참여 이벤트도 대표적인 사기·피싱 수법으로 꼽았다.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거래와 자산 전송을 멈추고 공식 채널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 상담부터 휴식까지… 업비트 라운지 새단장

브랜드·빅차트·상담 존 등 구성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넘어 고객 상담과 브랜드 체험을 결합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점점을 넓히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채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단장한 ‘업비트 라운지’를 22일 열었다. 업비트 라운지는 고객 서비스와 장애 지원, 상담을 전담하는 오프라인 창구로, 업비트 이용 중 도움이 필요한 고객 누구나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새로워진 업비트 라운지는 1층 인포데스크 및 ESG 프로젝트 공간 ‘업비트리 가든(UPbiTree Garden)’과 2층 ‘브랜드 존’, ‘빅차트 존’, ‘상담 존’ 등 차별 테마 공간으로 구성됐다.

1층에는 두나무의 대표 ESG 프로젝트인 ‘업비트리 가든’이 조성됐다. ‘당신의 Rest가 Forest가 되는 곳’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된 ‘업비트리’는 기존의 디지털 치유정원’과 ‘시드볼트 NFT 컬렉션’을 하나로 통합한 두나무의 ESG 브랜드다.

2층 브랜드 존은 2012년 두나무 설립부터 2017년 업비트 출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로의 확장까지 두나무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을 담았다. 브랜드 존은 업비트의 주요 성과와 글로벌 사업 현황, 그리고 Web3 인프라 브랜드 ‘GIWA(기와)’를 통한 확장 계획들로 채워져있다. 특히, 기와가 서로 맞물려 지분을 이루듯 견고한 Web3 생태계의 기반이 되겠다는 포부를 입체적인 블록 구조와 디지털 그래픽으로 시각화했다.

빅차트 존은 업비트의 우수한 데이터기



업비트 라운지 ‘업비트리 가든’ 전경.  
/업비트

술력을 바탕으로 주요 디지털자산 시세, 업비트 종합 지수, 공포탐욕지수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두나무는 재개장을 기념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장 이벤트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리며, 업비트 회원은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해 1층 인포데스크에

서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특별한 게임도 마련됐다. 20초 안에 비트코인 딱지를 뒤집으면 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을 지급하며, 행사 기간 중 최단 기록을 세운 1명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증정한다. ‘도슨트 투어’도 매시 정각과 30분에 진행된다.

/신하은 기자